



## 여성의 노동과 섬김에 대한 이해

양혜원

제가 오늘 이 주제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의 핵심은 바로 섬김의 성별성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성별성이란 같은 사안에 대해서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경험에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남자나 여자는 하나이다, 남자나 여자나 같은 인간이다, 라는 선언은 여성을 '인간'의 지위로 격상시켜주지만 그 때 경험의 기준은 '남자'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 '남자'처럼 해야 비로소 제대로 하는 것이고, 인간답게 하는 것입니다. '여류' 시인이라는 말은 있지만 '남류' 시인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이것은 시인의 기준은 '남자'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소설가 박경리 씨는 더 이상 여류가 아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여류'가 붙는 소설가는 그냥 소설가보다 열등하다는 말입니다. '모든' 인간에 대한 자유와 인권의 선언은 18세기에는 혁명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자들은 자신도 '인간'임을 입증하기 위해 끊임없이 '남자'같아 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어느 날 생각해보니, 같은 인간인데 왜 '남자'가 기준이 되어야 하고 '남자'가 모든 인간의 경험을 대변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이 생겼습니다. 여자의 경험은 분명 남자와 다른데, 그 다름이 인간이라는 보편적, 공통적 경험이라는 명목 하에 가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름을 이야기하면 곧 차별로 이어지기 때문에 신중해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름'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분명히 다른 데도 계속 같은 척해야 하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교묘한 권력 관계가 은폐되고, 또한 여성의 경험은 계속 묻혀버리기 때문에, '다름'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러한 관점에서 섬김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제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섬김의 신학이나 섬김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섬긴다'라는 말을 하면서 하고 있는 구체적 노동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교회에서 '섬긴다'라는 이름으로 일을 배분할 때, 남자와 여자가 같은 일을 합니까? 여자의 섬김은 밥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일, 차를 타다주는 것, 뒤치다꺼리를 하는 것 등으로 이해가 됩니다. 남자의 섬김은 차량 운전을 해준다거나, 가구를 옮긴다거나, 어떤 장비를 만진다거나 하는 일과 연관이 됩니다. 아이를 돌볼 때도 여자의 섬김은 주로 유아와 관련해서이고, 남자의 섬김은 청소년 이상의 아이들과 나가서 축구를 하거나 족구를 하면서 놀아주는 것입니다. 물론 남자가 주방에서 전혀 섬기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주로 밥을 퍼주거나, 무거운 밥솥을 나르는 일 등입니다. 간혹 설거지를 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그 모든 일의 뒷정리도 결국 여자가 합니다. 만약에 남자가 요리를 한다면, 그것은 정말 '요리'이지 삼시 세끼를 챙기는 시시결령한 식사가 아닙니다. 남자 요리사도 집에서는 밥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남자에게 요리는 번듯한 직업이거나 즐거운 취

이 문서는 라브리 웹사이트에서 내려받은 것으로, 개인 및 그룹 공부를 위해서만 인쇄, 복사, 배포 등이 허가되었습니다.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하려면 별도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라브리의 공식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This document was downloaded from L'Abri Korea. Printing and distribution are permitted only for study purposes. For all other uses, please obtain permission from L'Abri. L'Abri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is document.

미입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그 일에 대해서 통제력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남자에게 여자들처럼 부엌에 매여 끼니때마다 밥을 해내어야 하는, 아무런 사회적 신분도 보상도 주어지지 않는 그 일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고 하면, 과연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게다가 가족들의 식성과 영양까지 일일이 고려하면서 제한된 예산 안에서 해야 한다면 말입니다.

부부 관계에서도 섬김은 성별화되어 있습니다. 전에 미국 라브리 간사인 마르디 카이즈의 글에서, 아이 중 누군가가 토하면 먼저 달려가 그것을 치우는 사람은 자기 남편이라는 글을 읽고 정말 감동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일 지저분한 (토한 것 치우기, 똥 쓴 것 치우기, 음식 쓰레기 치우기 등) 허드렛일은 주로 여자가 합니다. 하지만 집에 못 박을 일이 생기거나 가전제품이 망가지면 남자가 섬기겠다고 나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못 박는 일이 즐겁습니다. 하지만 제가 못을 박을라치면 남편이 나섭니다. 그런데 제가 힘들어하는 방걸레질은 하겠다고 나서지 않습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남자들이 그럴 것입니다. 선심 쓰고 방걸레질은 한번 하더라도 걸레까지 빨아놓지는 않겠지요.

신약성경에서 '섬기는 자'로 주로 사용된 헬라이어 중 하나인 디아코노스(Diakonos)는 심부름을 하다는 뜻의 디아코(diako)에서 파생되었다고 합니다. 그 뜻은 시종, 식탁에서 시종드는 자, 섬기는 몸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단어인 테라폰(Therapon)은 천한 하인, 허드렛일을 하는 하급 종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단어의 뜻으로 미루어 볼 때, 남자들이 하는 일보다는 여자들이 하는 일이 섬김의 노동에 더 가깝습니다. 보통 사역자들이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한다고 말하지요. 그런데 그 사역자를 섬기느라 여자들이 돈도 벌고, 애도 키우고, 살림도 합니다. 이처럼 섬김의 노동은 성별화되어 있고 섬김 중에서도 가장 허드렛 섬김은 고스란히 여자의 몫으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음과 같이 반론은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여자와 남자를 다르게 지으셨으니 서로가 하는 일이 다른 것은 당연하다. 그것은 역할의 차이지 차별은 아니다. 앞의 강의에서도 성 정체성이 중요하다고 하지 않았느냐? 맞습니다. 성 정체성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특별한 성역할에 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명시적으로 남자가 하는 일은 이러해야 하고, 여자가 하는 일은 이러해야 한다고 당위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묘사할 뿐입니다. 그 당시의 노동이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창세기 3장 16-19절을 명령으로 보고 남자는 밖에서 수고해 돈 벌어야 하고 아내는 집에서 아이 낳고 살림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성경적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명령이기보다는 그렇게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현상적 설명으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즉 그것은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이기보다는 그러한 상태를 구속하고자 노력해야 하는 타락의 모습입니다. 또 앞의 강의에서 언급한 바울의 가정훈을 가지고도 당연히 남편이 가장이 되어야하고 가장은 돈을 벌어드는 사람이라는 공식을 유추해냅니다. (여기에서는 가장에 대한 논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도 해석상의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고, 저도 아직 정리가 안 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남편은 생계 노동자이고 여자는 가사 노동자라는 공식을 바울의 가정훈에서 자연스럽게 유추해냅니다. 그러나 바울의 가정훈은 그러한 특정 성역할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기동력이 떨어지고 주로 아이와 한 장소에 머물기 때문에 그곳에 머물면서

아이와 자신의 생명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생명을 유지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살림'이라고 부릅니다. 또 여자의 생리도 여자의 활동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성의 역할을 온통 출산과 가사로만 환원시킬 이유는 없습니다. 여성이 인간으로서 자신을 실현할 수 있는 장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명령하신대로 이 세상 전체여야 합니다. 그리고 남자가 인간으로서 자신을 실현할 수 있는 장도 이 세상 전체여야 하고 그 전체에는 가정도 포함됩니다. 보통 남자가 활동하는 세계는 가정을 제외한 모든 곳이고, 여자가 활동하는 세계는 가정이 전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경적인 다스림과 섬김을 실천하는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흔히 남자와 여자가 다르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여자를 특정한 역할에만 매어두기 위해서 그리고 차별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다르기 때문에 남자의 영역에 들어올 수 없고 남자가 받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들이 하는 일은 그들의 본능이 시키는 것이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자의 일은 여자들이 하도록 타고난다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여자들을 특정한 역할에만 묶어두고 그 역할로 환원시키려고 하는 시도입니다. 여자들이 하는 일이 출산이라고 하는 매우 드라마틱한 생물학적 현상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자들이 하는 일은 '자연'에 가깝고, 본능에 충실한 것이라고 여겨지기가 쉬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자들이 집에서 수행하는 가사 노동도 특별한 훈련이나 교육이 필요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수행되는 일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성들도 자신에게 일어나는 생물학적인 현상에 대해서 끊임없이 해석하고 성찰합니다. 즉 그 현상은 통제할 수 없을지 모르나 그것에 대한 의미 부여는 많은 부분 노력입니다.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처럼 좋은 어머니도 의지적인 노력의 산물입니다. 다만 여자들은 좋은 어머니가 못될 경우 사회적인 지탄을 받고 스스로도 죄책감에 시달리지만, 남자들은 자신이 생계노동을 한다는 이유로 쉽게 면죄부를 받습니다.

한편 여성의 노동도 매우 간접적이고 은밀한 방식으로 오랜 세월이 걸쳐서 집안의 여성들을 통해 전수되고 교육되고 훈련됩니다. 빨래를 널 때 탁탁 털어서 가능한 구겨진 곳을 펴서 반듯하게 널어야 한다는 것을 많은 여자들은 알지만 남자들은 모릅니다. 이것이 본능입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빨래를 너는 어머니는 아들을 불렀을까요, 딸을 불렀을까요? 제대로 빨래를 널지 못하면 딸이 혼났을까요, 아들이 혼났을까요? 어머니가 식사를 준비할 때도, 딸이 거들까요, 아들이 거들까요? 이렇게 아주 은밀하고 간접적인 방식으로 여자의 노동은 여자에게 전수되고, 그것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직, 간접적인 꾸지람이나 비난, 체제 등 이 돌아오는 것을 통해 훈육이 이루어집니다. 여자들 주변에서 여자들이 하는 것을 보면서 자란 딸은 그것이 자신에게 낯설지 않습니다. 이처럼, 이것은 본능이기보다는 사회적 학습입니다. 그렇다고 여자들이 전혀 그 일을 즐거워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을 섬기는 일은 사람에게 기쁨을 가져다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섬기는 사람이 그 섬김으로 인해 행복해할 때 섬긴 사람은 기쁩니다. 하지만 이것은 남자가 이 노동을 수행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사회적 학습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오랫동안 유지되었고, 여자들도 그 일이 '때로' 즐겁다면 왜 굳이 그러한 성역할 혹은 성별적 섬김을 문제 삼는가 하고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러한 고정된 성역할의 부작용이 크기 때문입니다. 은퇴한 노부부들 사이에 이러한 농담

이 있습니다. 이사 갈 때면 남편은 제일 먼저 트럭 앞좌석에 타고 기다린다. 혹시 자기를 두고 갈까 봐. 그리고 아내가 곰탕을 끓이기 시작하면 두려워진다. 또 며칠 집을 비울 테니까. 남자의 성역할이나 부부 사이에서 남편의 섬김은 주로 성실하게 돈을 잘 벌어드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퇴하고 남자가 집에 있게 되면, 순식간에 애물단지가 되어버립니다. 돈을 벌어오지 않는데 삼시 세끼 밥은 차려줘야 하니, 늘그막에 애매한 감옥살이 한다고 말하는 여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내, 외라고 하던 성역할의 분담으로 이루어지던 부부 관계가 갑자기 '내'라고 하는 같은 공간으로 국한되니까 그 관계를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 전혀 아는 바가 없어 갈등만 커집니다.

가정을 제외한 모든 곳을 다스림의 대상으로 하던 남자는 가정을 도구화하기 쉽습니다. 잠깐 들러 아내가 차려주는 밥 먹고, 자식들이 자신이 고생하는 것에 합당하게 좋은 성취를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는 또 밖으로 나갑니다. 어떤 가정들은 남자는 밖에 나가 세상을 구원하느라 바쁘고 여자와 아이들은 집에서 굶고 있거나 아니면 아버지의 부채로 외롭게 지냅니다. 아마도 목회자 가정이 그 대표적인 예이겠지요. 그러던 남자가 은퇴를 하고 집으로 돌아오면, 그 남자가 이제는 도구화되는 경험을 합니다. 가정에는 자신이 설 자리가 없고, 그동안 자신은 가정을 지탱하는 경제적 혹은 (경제력이 별로 없었다면) 사회적 수단에 불과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직 가정만이 자신의 세계였던 여자들은 어떨까요? 어떤 여자들은 중년을 넘어서면서 심한 박탈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나는 누구인지, 내가 뭐하는 사람인지, 하는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세상에 나가서 맞설 자신감을 다 잃어버린 채 무기력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덜컥 남편이 먼저 죽기라도 하면, 결국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백화점 판매원 같은 아주 박한 임금의 임시 계약직이나 가사 도우미처럼 자신이 늘 집에서 하던 일의 연장으로 할 수 있는 일 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간혹 운 좋게 남자들처럼 세상에서 자신의 뜻을 실현시킬 기회를 가진 여자들을 보면서 시기합니다. 여자의 적은 여자라는 말을 하는데, 이것은 정말 잘못된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를 일으킨 장본인인 남자는 속 빠져버리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남자는 남자 개인일 수도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여자에게 합법적인 목소리와 권력을 주지 않는 가부장제입니다. 그러한 사회에서는, 앞의 강의에서도 말한 것처럼 여자들이 교묘한 술책으로 남자를 조정하는 것 밖에는 자신의 뜻을 관철시킬 수가 없습니다. 아니면 제한된 파워를 차지하려고 여자들끼리 서로를 끌어내리는, 무엇을 이루기보다는 같이 망하는 경쟁을 하게 됩니다.

섬기는 리더십(servant leadership)이라는 말을 요즘 많이 합니다. 그런데 섬김의 노동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남자들은 여전히 leader의 자리에 있고 여자들은 servant의 자리에 있게 될 것입니다. 남자들이 밖에서는 어떤 섬김의 활동을 할지 몰라도, 집에 와서 아내에게도 그와 같은 섬김의 노동을 하지 않는다면, 그는 여전히 leader의 자리에만 머물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여자는 자기 가족만 챙기고 그 안에서만 안정감을 누리려하는 대신에 타인과 접하면서 사회성을 키우고 공공성을 길러야 합니다. 사적 관계에만 익숙한 여자들은 때로 공적인 문제도 사적으로 해결하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자들은 비록 열악한 환경이기는 하지만 자신의 목소리를 정당하게 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교묘하게 조종하거나 호의를 사는 방식으로 자기 길을 개척하는 것은 일시적인方便이 될 수는 있을지 모르나 장기적인 원칙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자신의 성역할에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부름에 따라 섬긴다면, 훨씬 더 많은 일을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고정된 성역할에 너무 오래 머문 사회는 상대방의 성역할을 할 때 일시적인 성정체성의 혼란이 옵니다. 그러나 남자가 부엌에 들어가면 고추 떨어진다고 하는 말의 효력이 갈수록 더 약해지는 시대가 온 만큼 그것은 극복할 수 있는 혼란이고, 장기적으로도 더 유익할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